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65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현정 · 복기왕 · 이재관
강준현 · 양부남 · 송옥주
황명선 · 남인순 · 박홍배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 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 및 전문투자자별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수량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선정에 있어 발행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독립성의 확보 및 이해상충의 방지 체계 마련, 제3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제공에 대한 공시) 발행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9조의6(주권의 사전 청약에 대한 특례) 제119조의4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 제121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4제1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11. 제11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을 권유</u>

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 및 전문투자자별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수량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선정에 있어 발행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독립성의 확보 및 이해상충의 방지 체계 마련, 제3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제공에 대한 공시) 발행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

제119조의6(주권의 사전 청약에 대한 특례) 제119조의4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 제121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llegible]

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5의10. (생략)

<신 설>

----- . 다만, 제119조의4

----- . 다만, 제119조의4
제1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1. ~ 35의10. (현행과 같음)

35의11. 제119조의4제3항을 위
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한 자

36. ~ 49. (생략)	36.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